

KIA 마운드 '필승 카드'는 리그 최고 슬라이더



올러



네일

수치로 입증된 KIA 슬라이더 효율 17.4 '리그 최강'

선발 원투펀치 네일·올러, 주무기로 타자 압도 '경쟁력 입증' 험거워진 뒷문 단속 '키', 흔들린 불펜진 '배짱'로 녹여내야



올 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를 대표하는 무기는 단연 '슬라이더'다.

야구통계사이트 스탯티즈에 따르면 19일 기준 KIA의 슬라이더 효율(구종가치/100)은 17.4로 10개 구단 중 1위다. 이는 100구를 던졌을 때 평균 17.4점만큼 실점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리그 상위팀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1위 LG(8.8), 2위 한화(10.8)를

크게 앞섰고, 3위 롯데(12.4)와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KIA 마운드 전체 슬라이더 구사율은 26.7%로 포심(36.3%)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평균 구속은 132.9km로 리그 평균 수준이지만, 피안타율은 0.258로 안정적이다. 반면 포심(1.6), 커브(3.3), 체인지업(6.9) 등 다른 구종의 가치는 평범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 슬라이더의 위력은 선발 원투펀치가 이끌고 있다.

네일은 슬라이더 구사율 31.0%에서 피안타율 0.159, 피장타율 0.205를 기록했고, 올러는 30.4%의 구사율 속에 피안타율 0.137, 피장타율 0.171로 더 안정적이다.

두 선수 모두 직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패턴이 확고하다.

불펜 역시 수치상으로는 경쟁력을 보인다.

성영탁(구사율 41.1%, 피안타율 0.1대), 최지민(21.9%, 0.1대), 전상현(30.8%, 0.2대), 정해영(30.5%, 0.2대) 등 핵심 불펜 다수는 직구 계열에 이어 슬라이더를 주요 구사 구종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모두 피안타율 0.1-0.2대를 기록하며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 불펜의 안정감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실제 마운드에서는 구속, 투수 개인 컨디션, 경기 상황, 날씨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한

다. 최근 뒷문은 제구 난조와 집중력 저하로 흔들리고 있다. 불펜의 슬라이더 수치는 준수하지만, 위기 순간마다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성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KIA 선발진 평균자책점(ERA)은 3점대로 안정적인 반면, 불펜 ERA는 5점대로 리그 9위에 그친다. 이 격차가 곧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강한 슬라이더'의 효과마저 반감시키고 있다.

문제는 슬라이더의 강점 그 자체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불펜이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다.

불펜이 안정감을 회복해야만, 슬라이더의 강점이 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슬라이더의 가치를 마운드 운영 속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KIA의 관건이다.

이동길 KIA 투수코치는 "필승조 투수들이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변화구가 슬라이더라는 건 분명히 강점"이라면서도 "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다 보니 선수들이 위축되는 모습이 있다. 심리적인 부담과 피로도가 겹치며 흔들린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선수들이 자신이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구종을 과감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님과 함께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매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슬라이더를 비롯한 구종 활용도를 세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슬라이더의 위력은 이미 수치로 입증됐다. 이제 그 무기를 성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불펜의 회복에 달려 있다.

/주홍철 기자

"매 경기 100% 경기력으로 팀 승리 위해 뛰겠다"

시애틀 퍼스 '봄 배구 청부사' 조이 웨더링턴

"파워풀한 공격으로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될 것"

"팀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 입성한 조이 웨더링턴은 최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대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리그를 거치며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다진 웨더링턴은 2025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AI페퍼스의 지명을 받았다.

지난 1일부터 팀에 합류해 팀 훈련을 소화중인 웨더링턴은 "새로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 감독님과 코치진, 구단 직원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아줘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드래프트 직후 AI페퍼스로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전달 받고 시즌을 열심히 준비했다. 현재 몸 상태는 정말 좋다. 코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말했다.

웨더링턴은 V리그에서 활약했던 동료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AI페퍼스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를 언급하며 "니아가 V리그와

한국 문화, 생활 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웨더링턴은 184cm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점프가 좋고, 강한 스파이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아포짓 포지션인 만큼 파워풀한 공격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고 100% 기량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웨더링턴은 힘이 좋고, 선수로서의 마인드도 긍정적이며 배구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다"며 "높은 타점과 유연한 공격, 순간 대처 능력이 탁월한 만큼 다양한 옵션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낮설고 힘든 훈련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팀에 녹아들며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어 칭찬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웨더링턴은 개인적인 목표보다 팀 성적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는 "배구는 팀 스포츠다. 목표는 매경기 승수를 쌓는 것이고 더 나아가 봄배구까지 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애틀 퍼스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 입성한 조이 웨더링턴이 손가락 하트 포즈를 선보이고 있다.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웨더링턴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웨더링턴은 "인스타그램(SNS)으로 많은 환영 메시지를 받아 큰 힘이 됐다. 따뜻하게 맞아준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며 "저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희중 기자

수피아여고 이가현, 전체 1순위로 신한은행행

여자농구신인드래프트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포워드 이가현(18·180cm·사진)을 지명했다.

신한은행은 20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수피아여고 이가현을 지명했다.

이가현은 슈팅과 돌파에 강해 득점력이 뛰어나

난 선수로, 16세 이하(U-16), 18세 이하(U-18), 19세 이하(U-19) 대표팀에 모두 승선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3 국제농구연맹(FIBA) U-16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평균 24.8점으로 대회 득점 1위를 차지했고 지난달에는 FIBA U-19 여자농구 월드컵에서 한국을 세계 9위로 이끄는 데 앞장섰다.

최윤아 신한은행 감독은 "이가현 선수는 큰 키에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며 "윙스



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팬과 신장, 넓은 어깨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은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꿈같고, 아직 꿈인지 생인지 잘 모르겠다"며 "제일 빨리 적응

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년엔 'EV3'...올해는 'EV4'

최형우, 시즌 첫 '기아 홈런존' 직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해결사' 최형우가 2025시즌 기아 홈런존의 첫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는 지난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 경기 4회말, 무사 1·2루에서 상대 투수 김연주의 공을 받아쳐 '기아 홈런존'을 직격하는 스타리닝포를 터뜨렸다.

KIA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장 첫 해(2014년)부터 우측 잔디석에 '기아 홈런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운스 없이 홈런존 차량 및 구조물을 맞히는 선수에게 전시 차량을 증정한다.

최형우의 타구가 기아 홈런존에 전시 중인 'EV4' 차량 전시 구조물에 맞음에 따라, 기아는 신형 전기차인 'EV4'를 최형우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최형우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홈런존을 맞춰 'EV3' 차량을 받은 바 있다.

한 선수가 두 번이나 홈런존을 맞힌 건 내성범과 소크라테스 이후 세 번째이다.

/주홍철 기자



최형우가 4회말 기아 홈런존을 직격하는 홈런을 쳐낸 후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23일 강원戰 구단 첫 브랜드데이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 최초로 킷 파트너와 함께하는 브랜드데이를 개최한다.

광주는 20일 "오는 23일 나온행 K리그2 27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구단 공식 킷 파트너인 스포츠 브랜드 골스튜디오와 함께 브랜드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드데이는 구단 최초로 진행되는 행사로, 광주는 골스튜디오와 함께 특별한 볼거리 제공을 나선다.

먼저 브랜드데이에 맞춰 경기장 전역의 브랜드당 강화한다. E석 게이트 통로에는 선수들이



직접 디자인한 자필 현수막이 설치되며, A보드와 LED보드 역시 브랜드데이 컨셉으로 통일해 몰입감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는 골스튜디오 로고를 활용한 조형물에 골을 넣는 '골 챌린지 이벤트', 골스튜디오의 신제품 'KAIV(카이브)' 체험 부스 운영 등 풍성한 이벤트 마련된다.

선착순 5천명에게 '브랜드데이 기념 반디나'를 증정할 계획이며, 티켓 구매 추첨을 통해 선수단 전체 사인이 담긴 셔드 유니폼 액자를 선출한다.

/박희중 기자